

‘광주 글로벌 모터스’ 합작법인 오늘 출범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을 건립하고 운영할 합작법인(주식회사)이 20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출범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정부 지원 약속 아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을 맺고 투자자 유치에 나선지 7개월 만에 법인 설립 자금(자기자본금) 2300억원을 확보하고 법인 설립과 동시에 완성차 생산을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각종 어려움 끝에 첫 발을 내딛는 ‘광주형 일자리사업’ 앞에 다른 지자체들이 자동차 관련 산업을 들고 나타나면서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뛰어드는 강원·군산·울산·구미 등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모두 자동차 관련 산업에 집중되면서 중복투자,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자동차산업의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일자리 창출이 명제인 정부로서는 제조업에 눈을 돌리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이유는 자동차산업만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자

법인 설립 자금 2300억원 확보… 완성차 공장 사업 첫발
강원·울산·구미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자동차 산업에 집중
중복 투자·과잉 공급 우려 … 정부가 선택과 집중 나서야

체별로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달라 모두 필요에 따른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구미에서는 LG화학이 구미시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소재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강원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에서는 울산시 지원을 받아 현대모비스가 3000억원을 들여 전기차부품 생산공장을 짓는 사업이 추진 중이며, 군산에서는 엠에스(MS)그룹이 전기차 완성차 및 부품 생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와 투자자들, 그리고 지역노동계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경사를 맞고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

가 지난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형일자리를 반대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당시 지역 노동계는 울산에 자동차 부품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현대자동차 계열 부품사인 현대모비스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나쁜 기업”이라며 울산형일자리 사업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속내는 “광주에 오기로 한 부품공장이 울산으로 가게되는 게 아니냐, 그럼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한 소비도시 광주에 생겨날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니냐”며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당시 노동계의 기자회견 자리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공동책임,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정신을 바탕에 두고 탄생

한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선 정부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지역과 국가 산업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일 오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합작법인 설립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오후 2시부터 (재)그린카진흥원에서 합작법인 발기인 총회 및 출범식을 연다.

발기인 총회에서는 합작법인 투자자(주주)들이 법인 정관을 심의·의결하고, 이사·감사 선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주)‘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합작법인 명칭도 이 자리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박건수 산업부 장관, 광주은행 송종욱 행장,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지역 자동차 부품사 양진석 (주)호원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 준비 ‘착착’

부영그룹, 오늘 캠퍼스 부지 기부약정식 행사

40만㎡ 기부채납 무상 제공

한전공과대학(Kepco Tech) 캠퍼스 부지를 기부기로 하는 약정식이 열리는 등 대학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한전공대 부지 기부약정식’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입지 선정(1월) 후 6개월 이내 부지(40만㎡)를 기부채납 형태로 무상 공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810억원 규모의 부지를 한전공대 법인측에 증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최종 선정된

부영CC는 부영그룹 산하의 부영주택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영측은 골프장 120만여㎡ 중 40만㎡를 기부채납 형태로 무상 제공하기로 전남도와 약속했었다. 다만, 실제 증여는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1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전공대는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CC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설립비는 6210억원,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 수는 대학원생 600명·학부생 400명·외국인 학생 300명 등 1300명의 학생과 교수 100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반도 평화 천금의 기회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북미 실무대화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문 대통령을 포함한 남측을 향해 막말을 내뱉으며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 북측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기회가 무산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는 모두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빛원전 1·3·4호기 차라리 폐쇄” ▶6면

굿모닝 예향 - 문화 바캉스 ▶18·19면

KIA, 험난한 원정 6연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뜨거운 태양 아래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막바지 무더위가 이어진 19일 신안군 증도의 태평염전에서 염부들이 하얗게 결정된 소금을 채염하느라 분주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